
 교육부	<h1>보도자료</h1> <p>2021. 7. 9. (금) 배포</p>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	
보도일	<b>2021. 7. 9.(금) 중대본 발표 시(11:00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</b> <b>인터넷·방송·통신 7. 9.(금) 중대본 발표 시(11:00) 보도 가능</b>		
담당과	교수학습평가과	담당자	과 장 신진용 (☎ 044-203-6729) 사무관 김희준 (☎ 044-203-6471)

##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(7.9)

- ◆ 수도권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격상에 따른 전면 원격수업 전환
- ◆ 학사운영 조정 준비기간을 거쳐 7.14.(수)부터 본격 적용

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)는 7월 9일(금)에 열린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(이하 중대본)에서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격상을 결정함에 따라 학교의 학사일정도 조정하기로 하였다.

※ 인천 강화·옹진군은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 적용

- 거리두기 4단계의 적용기간은 7월 12일(월)부터 7월 25일(일)까지 이나, 학교의 경우 학사운영 조정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, 7월 14일(수)부터 본격 적용한다.

※ 지역·학교 여건에 따라, 7월 12일부터 선제적 조치 가능

□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월 9일(금) 08시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과 긴급 회의를 열어 확진자 증가추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고,

-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,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수도권 지역 학교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하였다.

### <<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학교밀집도 기준 >>

단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인원 기준	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↓	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↑	전국 1,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↑	전국 2,000명 이상 수도권 1,000명 ↑
밀집도 기준	전면 등교	전면 등교 가능 "중·고 밀집도 2/3, 초3~6학년은 3/4 이상"	초등3~6 3/4 이내 중학 1/3 ~ 2/3 고교 2/3	<b>원격수업 전환</b>
기타 사항	돌봄,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, 중도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는 밀집도 제외 특수학교(급) 학생은 4단계 시에도 1:1 또는 1:2 대면교육 가능			

- 상당수 학교가 7월 중순 이후 여름방학\*을 시작하고 중·고등학교의 학기말 평가\*\* 일정이 대부분 마무리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, 원격 수업운영은 최대 2주간 이루어질 예정이다.

\* 방학: 7월 4주(7.19.~23.)까지 초등 93.7%, 중학교 98.8%, 고등학교 99.1%가 방학 시작

\*\* 평가: 7.9.(금) 기준, 중학교의 94.8%, 고등학교의 96.9%가 기말고사 실시

- 원격수업 시에도 **돌봄**,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및 특수학교·학급 학생 등에 대한 **소규모 대면지도** 등은 가능하다.

- 남은 1~2주의 기간 동안 원격수업을 통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공학습관리시스템(LMS : e학습터·EBS온라인클래스)을 점검하고,

※ 유치원과 초 1·2는 EBS 방송, (놀이)꾸러미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운영

- 원격수업 기간 중 **학부모 돌봄 부담 최소화**를 위해, 긴급 돌봄에 준하는 **초등 돌봄**을 운영하고, 유치원의 경우 돌봄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를 대상으로 방과후 과정(돌봄)을 운영한다.

- 원격수업 운영 기간에도, 불가피한 경우 **학년별 시간·동선 분리** 등 **밀집도 최소화** 조치를 전제로 **등교**를 허용한다.

- 학기말 평가가 진행 중이거나 실시 예정인 학교의 경우, '2021 학년도 출결·평가·기록 지침(가이드라인)'에 따라 **제한적으로 등교**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- 학기말 평가 이후 **성적 확인**, 7월 19일(월)부터 시작되는 **고3 학생의 백신 접종**과 관련한 **유의사항 사전 교육** 또한 등교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.

- 교육부는 방역당국 및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2학기 시작까지 남은 40여 일의 기간 동안 전 교직원과 학원 종사자 백신 접종 등 학교 방역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.

